

프로야구 5강 싸움 피 마르죠? 명품 사회인야구로 힐링하세요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 6일 개막

무등·광일리그 각 16개팀 두 달간 열전 돌입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무등기 정상을 향한 도전이 시작된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6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개막전을 갖고 두 달간의 대장전에 돌입한다.

광주·전남지역의 '명품' 사회인야구대회인 무등기는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뉘어 치러지며 오는 11월8일까지 열전의 무대가 이어진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등리그 16개 팀과 광일리그 16개 팀은 매라운드 베팅 끝 승부를 펼쳐며 우승컵을 노리게 된다. 경기는 무등경기장 외에 지정된 지역 구장에서 전개된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정상에 오른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우승메달과 함께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각 리그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우승메달 및 상금 30만원이 돌아간다. 공동 3위에게는 상금 10만원이 수여된다.

좋은 기량을 선보인 선수를 위한 개인

타이를 시상도 준비됐다. 각 리그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우수선수, 최우수심판도 트로피와 상금을 받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생물체육회, 전라남도생물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또 올해 대회부터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가 광주일보와 함께 광주·사회인야구의 '가을잔치'를 이끌게 됐다.

대회 첫 승리팀은 6일 오전 8시 광주일고에서 열리는 무등리그의 레드위리어스와 에프나인의 대결을 통해 가려진다. 오전 10시에는 세한기업재규어스와 안타처블이 맞붙고, 오후 12시에는 신희레전드와 페가수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오후 2시에는 아이프렌즈와 8312FRIENDS, 오후 4시에는 맘슈퍼라온베이스볼과 파트너즈가 8강을 향한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제4회 무등기 광주 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 토너먼트 광주신나부러야구단과 한울바쿠스 경기. 5회초 1사 신나부러 야구단의 정대길(시호형타자)의 중전안타 때 홈으로 쇄도하다 아웃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리그 참가팀

◇8312 Friends(대표 김덕근) 추억을 함께 나눈 이들이 야구로 추억을 만든다.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지인들이 야구로 다시 하나가 됐다.

▲감독 : 이승신 ▲선수:김덕근 소대성 권오현 박주현 손동주 윤희범 전찬진 김종남 이현 하진원 이영훈 민성홍 홍일갑 이우정 김영재 정경우 오종선 황성연 남준성

◇AWESOME(대표 김기범) 2012년 창단해 가족같은 끈끈한 팀워크로 야구실력을 쌓아오고 있다. 올 시즌은 정상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감독 : 조정희 ▲선수 : 나운 정철민 김진주 정주환 김기범 박지수 오상훈 정호진 김기민 조영근 박성민 채창훈 정재환

◇MK한방병원(대표 노성록) 야구라는 공통분모로 모여 5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광주 베이스볼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팀이다.

▲감독:노성록 ▲감독:박현석 ▲선수:문준식 전봉환 박현진 박성규 안준이 강판식 최성록 조형철 이영주 김명신 조호현 이영희 김정근 정효태 정원신 진성근 강승진 이왕주 손주준 박준일 진영석

◇레드위리어스(대표 민태호) "We are one!"을 외치며 즐거운 야구를 꿈꾼다. 또 다른 세계의 실력있는 팀과의 교류와 경쟁을 위한 무등기다.

▲감독:민태호 ▲선수:김병희 김용연 김형일 나요리 나재현 노재기 박상선 박찬모 서상석 서현철 신수권 이기민 정희원 최승환

◇맘슈퍼라온베이스볼(노대성) 야구는 복잡하다. 그래서 재미있다. 즐거운 야구, 생각하는 야구, 노력하는 야구팀의 유쾌한 무등기 도전이다.

▲감독:이영기 ▲선수:이점구 이광형 노대성 류재두 김광 전영현 이윤혁 김근범 황국연 나병길 최세정 안창섭 김중환 성요한

◇무등산생태요양병원(대표 윤상연)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야구가 좋아서 야구를 해보고 싶어서였다. 평범한 사람들이 야구를 하기 위해 만났다.

▲감독:김선도 ▲경기이사:윤상연 ▲코치:정범준 최연석 채문기 전경호 ▲선수:전용환 박종산 정현우 양동화 이범석 이대수 홍상진 이재형 김건구 김태용 박경남 장병웅 조민식 박종철 오은상 김호 이광운

◇세한기업 재규어스(대표 정경국 서승태) 13년의 전통이 있는 팀. 무등기를 대표하는 명문팀이기도 하다. 무등기 1·2·4회 정상에 올랐던 이들의 또 다른 우승 도전.

▲감독:정경국 ▲총무:서승태 ▲선수:김승걸 국범석 신종식 김성주 서승철 김준혁 김덕영 임현석 박상신 김민영 배명권 오창욱 홍성준 홍길준 임현 이병준 김용신 윤지은 안석원 이태훈

◇신희레전드(대표 민상철)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만났다. 정정당한 승부로 야구를 즐기며 무등기에 도전한다.

▲감독:민상철 ▲선수:박재혁 김혁 안순용 김기석 홍수인 김영준 이광인 김희주 유기룡 박필수 정광호 전주홍 박동원 황건하 문대중 한영현 김태선 박상현

◇아이프렌즈(대표 김남국) 보람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야구를 시작했다. 광주베이스볼 소속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감독:김남국 ▲선수:정성은 류기돈 이동규 김윤학 김영철 유진우 김대일 김신업 여길현 임용백 김세현 송석중 이종문 전은수 송하진 허근영 오영권 김성연 김지훈

◇안타처블(대표 박선열) 야생야사.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사나이들이 젊음과 패기로 뭉쳤다. 2011년 창단해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감독:박선열 ▲총무:김일윤 ▲선수:곽현호 김국민 김동영 김민주 김재용 김희형 노우승 박진원 선호일 양오섭 안호섭 전주영 정승민 정승원 정영규 정인기 조재훈 최대양 한승업 황준영

◇에프나인(대표 진우우) 경쟁의 무대지만 성격보다는 즐거움을 생각한다. 분위기를 우선으로 서로 힘이 되면서 즐겁게 야구를 하고 있다.

▲감독 : 진우우 ▲선수 : 장광의 노요한 박종현 조정훈 문웅남 조준영 조영오 임동일 진성수 허욱 김민을 기민규 이경훈 기승주 박진우

◇유한김벌리 양솔 킴야구단(대표 양해인) 2009년 창단해 올 시즌 베이스볼리그에 새 등지를 꾸렸다. 지역은 물론 전국대회에 참가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감독:윤훈 ▲감독:곽현희 ▲총무:최영수 ▲선수:김홍수 김인호 손재중 이장호 황인수 최형필 최정재 설경진 김용철 박화랑 김대진 우봉진 백종식 박재용 나경준

◇자연환경 유한회사 야구단(대표 정상현) 자연환경의 이름으로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화합과 우정을 바탕으로 실력을 발휘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감독:백규식 ▲감독:정상현 ▲코치:양건우 ▲선수:김광수 김정욱 고현무 류영광 박경중 박래준 박철준 서재근 신경수 장규승 정광영 최윤희

◇조연브라더스(대표 임철용) 30대 후반 멤버들의 뜨거운 야구사랑이다. 광주 베이스볼에서 야구 실력과 팀워크를 키워가고 있다.

▲감독:임철용 ▲선수:정종욱 김재용 이경식 이승만 이정담 이병승 박지훈 양경표 이동승 박재현 박원주 조성필 이백년 김현구 이재학 박현석 김영수

◇파트너즈(대표 김창근)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의 야구클럽이다.

▲감독:김창근 ▲총무:서재형 ▲선수:윤준일 박노을 정은필 조후진 김대원 박재현 김창현 심기환 양태호 김은민 박성호 김용준 이규중 이범석

◇페가수스(대표 정동준) 10년 이상의 역사와 추억이 쌓였다. 끈끈한 팀워크와 우정으로 웃고 즐기며 야구를 하는 실력있는 팀 페가수스.

▲감독:손우광 ▲감독:정동준 ▲코치:정대용 ▲선수:임창일 김영학 박상태 이석우 김상호 최동훈 염원섭 안범모 남정우 김경표 이상호 안용순 서진영 김일완 김성우 임호석 오광석 주창호 김영기 고관보 박병선

광일리그 참가팀

◇NH지아엔츠야구단(대표 문병관·강신우) 화순관내 농협 직원들과 조합원 자녀·지인이 뭉쳤다. 다이나믹하고 끈끈한 팀워크로 그라운드를 누빈다.

▲감독 : 문병관 ▲고문 : 안상섭 ▲단장:양진영 ▲총무:문병철 ▲선수:김영기 홍기남 열철용 구정철 강신우 김태운 이태경 정진우 정길호 김진진 성봉현 강기홍 유영진 김성수 김길수 차철안 박남필 김동건 황환희 김대경 최세중

◇TNT(대표 김영진) 평균 나이 36.4세. 선수출신도 없지만 야구 열정만큼은 프로. 순수 동호인들의 뜨거운 도전이 시작된다.

▲감독:김영진 ▲주장 : 이기호 ▲코치:김승희 ▲총무:노현민 ▲선수:김홍익 나준성 박성태 박종승 배용준 염대성 유지운 이백호 조강열 차성봉 최수진 최재훈 ◇금호허리케인(대표 고남석)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허리케인 야구단의 역사. 좋은 매너를 강조하지만 플레이는 허리케인처럼 강렬하다.

▲감독:고상석 ▲코치:이정현 ▲선수:고남석 조상식 이준현 송만식 오규종 강진혁 김상엽 정승중 김종원 주기환 김한기 최용석 이종현 이우현 노진성 김연식

◇레드제이스(대표 문재현) 광주전남 정상리그 토요 2부에서 2015 시즌을 보내고 있다. 야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레드 제이스.

▲감독:최윤민 ▲코치:조익수 서정길 ▲총무:문재현 ▲선수:김규환 김장영 임효현 김유창 박영 이재현 이일동 오병용

서기선 백종두 전운호 김민식 정준우 김봉민 안재원

◇시니어스(대표 오명진) 야구가 있어서 즐겁다. 그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료가 있어 더 빛나는 그라운드. 즐거운 도전.

▲감독:임진강 ▲총무:오명진 ▲선수:이기홍 박정기 박정주 김지현 문성모 신순철 장병환 정덕균 유재민 정지원 조광수 박종호 박진호 백윤길 한상훈 윤정승 양형성 정재철

◇아심만만(대표 이영안) 야구에 대한 열정을 팀명에 담았다.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아, 열아, 득야하며 열정을 불태운다.

▲감독:이영안 ▲선수:송중현 김익관 임종득 최동훈 강재희 김태우 안성환 신향조 박종혁 김태혁 김훈 정희원 문승민 조성수 배대진 문현철 김영욱 임대열

◇연희한방병원야구단(대표 김병조) 2013년 대한철강야구단으로 세 차례 준우승을 이뤘다. 2015년 연희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우승행진을 시작했다.

▲감독:정영수 ▲총무:김병조 ▲선수:정영수 김병조 김기정 박주남 김진형 주기석 김동석 정광식 정성엽 김상수 정원택 이창수 김기수 김길수 손재근 장재규 채효석 최두일 광현영 박재현 임호석

◇정진산업스카이라이프(대표 정재운) 스카이라이프로 지내온 시간이 20년이다. 오랜 역사에 무등기 우승이라는 기록을 더하기 위해 나선다.

▲감독:우해동 ▲총무:정재운 ▲단장:박창균 ▲코치:김태호 ▲구단주:조승현 ▲고문:정철욱 ▲선수:오영익 김용수 심정진 강기철 조경영 김세근 정준섭 이근식 정형근 최순용 이권 이동혁 손요한 노영주 최홍준 김광민

◇천지타이거즈(대표 박승동) 우정의 무대다. 중학교 친구들이 모여 2014년 천지타이거즈를 만들었다. 우정과 건강을 위해 그라운드에 오른다.

▲감독:박승동 ▲선수:민경태 김범수 하용재 김양주 정정열 박내주 이철성 정재진 박정안 김영배 이석행 정규진 권창오 정선호 김영록 김성진 정석준 박용현 정재욱 유종열 임현택 김광민

◇카멋진팀 V-COOL(대표 정종남) 2014년 가을 창단된 패기 넘치는 팀이다. 무

등기에서 경험과 추억을 쌓는다.

▲감독:정종남 ▲선수:정성민 정기준 김강민 정효영 주영환 주민호 김희동 공명규 문병환 노경현 고대석 조영오 윤병훈 탁홍석 박준호 김용준 이형수 조명운 전주상 문경환 김용선

◇타요바리스타즈(대표 박주용) TAYO cafe를 대표해 그라운드에 오른다. 오래전부터 참가하고 싶었던 꿈의 무대. 무등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든다.

▲감독:박주용 ▲선수:김욱 김재욱 김정훈 서동훈 오지훈 이대호 이영훈 장광우 정영진 조진훈 조환민 홍석주 한승현 홍준영 유인식 정순환 황형석 주철우 이근욱 선광남 이기남 송경민

◇터틀스(대표 양난호) 2002년 시작된 터틀스의 역사. 오랜 경험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순수아마추어 야구단의 패기 넘치는 열정의 무대.

▲감독:김동원 ▲총무:양난호 ▲선수:배석일 손성용 김대현 이재철 박현 정동현 한종갑 송희민 정성진 박상규 양동섭 지용 이가람 위종민 정지은 이진식 이경수 나영석 안재영

◇패밀리야구단(대표 방영환)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는 야구단이다. 2011년 광주 서구 리틀야구단 멤버들이 뭉쳐 야구 실력과 가족 사랑을 키운다.

▲감독:기현호 ▲감독:김진욱 ▲코치:방영환 ▲선수:정기중 안기중 김권중 구태홍 송경진 정기서 구남수 정민호 박영환 최인석 장덕진 이근우 김형선 구창혁 이영준 임종열 엄기선 문주영

◇화순에슬러틱스(대표 김경태) 2003년 광주 엔터 아틀스로 출발해서 화순리그에서 전종교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명문구단의 매너와 품격.

▲감독:김경태 ▲코치:이성준 ▲선수:곽대영 김광일 김성철 김중관 류세환 박성태 박원식 선영수 손용수 오민규 유영복 이봉운 이상현 이성원 이승우 이형석 정석철 정진수 조일우 천재영 최주성

◇화이트위리어스(대표 서형진) 2003년 광주위리어스로 창단해 정상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등기에서 다른 팀과 교류를 하며 실력향상을 노린다.

▲감독:서형진 ▲선수:이신영 이승환 김민영 박용호 조영태 서명석 문인국 정삼경 김남훈 박운상 김우창 김진혁 양금승 김동욱

◇흑룡(대표 정형준) 2010년 흑룡이 결성됐다. 2013년까지는 상사리그, 2014 광주베이스볼 리그, 올 시즌에는 스카이라이프를 누비고 있다.

▲감독:정형준 ▲선수:최진용 김중성 문호영 최영익 전종일 이승룡 박보현 임상현 임지서 고정태 이철욱 정성민 백건웅 박용석 정감모 조승민 장준호 윤주영 김성수 최홍렬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대진표

무등 토너먼트

광일 토너먼트

※ 1, 3은 맥아웃 표시 숫자임